

<2023 태국 UTCC 하기 계절학기 파견 수기>

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최예진

안녕하세요. 저는 2023 하기 계절학기(23.07.10 ~ 23.08.06)동안 태국 UTCC 대학으로 파견을 갔다 온 농업경제학과 최예진입니다. 이번 파견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, 혹시나 저처럼 단기 파견을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파견 활동은 저에게 언어 및 경험적인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.

1. 학교생활

저는 총 두 명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‘ASEAN ENVIRONMENT’ 과목을 수강했습니다. 처음에는 영어로 강의를 듣고 교수님 질문에 영어로 답을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지만, 점차 영어 리스닝 실력이 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 특히나 진행한 환경 분야의 수업은 저의 전공인 농업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, 더욱 열의 있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. 기말 과제였던 환경 친화적 사업 설계에 대한 발표도 조원들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, 칭찬을 아끼시지 않아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2. BUDDY 친구들

태국 UTCC 대학에서는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버디를 매칭 시켜 주었습니다. 버디들의 국적은 미얀마, 베트남 등 다양하였는데요, 버디들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알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학교에서만 버디를 만나는 것이 아닌, 학교 투어 프로그램 및 개인 약속 등에서 꾸준히 만나게 되며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현재 파견을 끝난 시점에서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, 글로벌한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

3. 단체생활

15명의 충남대학교 학생이 다 같이 파견을 가는 만큼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, 모두가 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. 특히나 막내였던 저를 모든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주셔서 더욱더 재밌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이처럼 글로벌한 면모를 키우고 싶고,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충남대학교 재학생분 모두에게 태국 UTCC 파견을 진심으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.